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의 관계

박의정 · 정경순*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Relationship of Ego-Resilience,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Department on Nursing Students

Park Euijeung, RN, Ph.D · Jeong Gyeongsun, RN, Ph.D*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s between ego-resilience,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Department on Nursing Students.

Method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2 nursing students in K college.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3, 2017 to April 20, 2017.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using SPSS 21.0 and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means,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 The mean scores for ego-resilience,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nursing students were 2.75 (± 1.00), 2.86 (± 0.95) and 3.72 (± 0.92) respectively. The ego-resilience score of the nursing students was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their religion ($F=4.39, p=.002$), choice motivation ($F=3.99, p=.004$),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F=13.53, p=.015$). The self-efficacy of the nursing stude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religion ($F=3.18, p=.014$).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nursing students also differed according to choice motivation ($F=7.54, p=.007$),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F=11.66, p=.001$).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r=.608, p<.01$), between ego-resili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r=.342, p<.01$), between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r=.256, p<.01$).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It is necessary to repeat the study with expanded number and scope of subjects in order to increase nursing a students' interest in Satisfaction of Departm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for enhancing nursing students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which will result in a higher degree of department satisfaction.

Key Words : ego-resilience, self-fficacy, satisfaction of department

*교신저자 : 정경순, sunck71@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 어렵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 자신의 삶의 목표와 일에 대한 가치관을 고려해서 학과를 선택하기보다는 학교 성적 및 졸업 후 취업전망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오지현, 2014). 입학 후에는 대학생활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이론 및 임상실습교육과정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습량에 대한 부담이 크며, 졸업 전 국가고시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타전공에 비해 비교적 높은 취업률 유지로 간호학과에 대한 입시 지원은 깊은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 정도는 일반대학생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김영희, 2015).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함으로써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적요인을 긍정적으로 조절하여 성공적인 학과 적응을 위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곽윤경, 2013; 김경남, 2015).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하게 나타나며, 간호실무 상황에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 낙관적인 태도, 부정적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성공적인 적응이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었다(김덕진과 이정섭, 2014; 김경남, 2015).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과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의미하며(박영신과 김의철, 2001),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우울, 강박증, 건강염려증 등의 정서적 스트레스 반응에 완충작용을 하여 학과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덕진과 이정섭, 2014; 전해옥, 2016; 전현숙, 2017). 따라서 타 전공학생들과 다른 교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있어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학과적응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 전략적으로 증진될 수 있으므로(장수현과 이미영, 2015; 박지현과 김은희, 2017) 자아탄력성 및 자기효능감의 증진 방안을 개발하여 학과적응 교육에 적용한다면 학생 개인의 자아탄력성 및 자기효능감 증진의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대학생활과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학과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하며,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이다(전현숙, 2017). 간호대학생들에게 재학 중 학과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세우는 것은 향후 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념과 태도형성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학과에 대한 만족요인은 외적환경요인을 받아들이고 통제하는 개인의 내적 자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김덕진과 이정섭, 2014), 이러한 개인의 내적자원에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학과만족도에 따라 간호학부의 과정에 임하는 태도에 차이를 나타내며, 나아가 간호전문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정애와 김정선, 2016).

학과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과적응에서 감성지능의 영향(신은정과 박영숙, 2013; 이외선, 2014; 김영순과 오은주, 2016),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정미현과 신미아, 2006) 등이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내적자원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의 관계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의 정도를 살펴보고,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의 상관관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B시의 K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와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시의 K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 3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32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탄력성

Klohn(1996)이 캘리포니아 인성검사(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이하 CPI)와 캘리포니아 성인용 Q-Set(California Adult Q-set: CAQ)을 토대로 29개의 문항을 뽑아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현진(1997)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

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낙관적 태도 10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자신감 9문항, 감정통제 2문항으로 총 29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진술 4문항과 부정적 진술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진술문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박현진(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Sherer 등(198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36문항의 척도를 홍혜영(1995)이 일부 수정하고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 17문항과 대인관련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 Efficacy)' 6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 긍정적 진술 10문항과 부정적 진술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3) 학과만족도

학과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Braskamp 등, 1979)를 김계현과 하혜숙(2000)이 수정·보완한 총 27문항의 학과만족도 척도 중 학교만족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 7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5문항, 전공하고 있는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계현과 하혜숙(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는 t-test,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 49명(15.7%), 여자 263명(84.3%)으로 여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연령은 20~25세 238명(76.3%)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2학년이 94명(30.1%)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181명(58.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성적은 평점 3.0~3.9가 145명(46.5%)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학과 선택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가 125명(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교우관계는 좋은편이 165명(52.9%)으로 가장 많았다(표 1).

표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n=325)

| 특성 | 구분 | n(%) |
|---------|------------|-----------|
| 성별 | 남성 | 49(15.7) |
| | 여성 | 263(84.3) |
| 연령 | 20세-25세 | 238(76.3) |
| | 26세-30세 | 34(10.9) |
| | 31세-35세 | 12(3.8) |
| | 36세-40세 | 7(2.2) |
| | 41세-45세 | 8(2.6) |
| | 46세이상 | 13(4.2) |
| 학년 | 1학년 | 92(29.5) |
| | 2학년 | 94(30.1) |
| | 3학년 | 77(24.7) |
| | 4학년 | 49(15.7) |
| 종교 | 기독교 | 79(25.3) |
| | 천주교 | 15(4.8) |
| | 불교 | 31(9.9) |
| | 무교 | 181(58) |
| | 기타 | 6(1.9) |
| 학업성적 | 2.0이하 | 1(0.3) |
| | 2.0-2.9 | 54(17.3) |
| | 3.0-3.9 | 145(46.5) |
| | 4.0이상 | 19(6.1) |
| | 해당없음 | 93(29.8) |
| 학과 선택동기 | 고교성적고려 | 15(4.8) |
| | 적성과취미 | 94(30.1) |
| | 취업률이높아서 | 125(40.1) |
| | 부모님이나선생님권유 | 49(15.7) |
| | 기타 | 29(9.3) |
| 교우관계 | 어려움을느끼는편 | 15(4.8) |
| | 보통 | 132(42.3) |
| | 좋은편 | 165(52.9) |

2.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2.75(±1.00)점이었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감정통제가 2.81(±1.11)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2.86(±0.95)점이

있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2.91(±0.91)로 높게 나타났다. 학과만족도는 평균 3.72(±0.92)점이었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인식만족이 4.25(±0.81)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정도

(n=325)

| 특성 | 변수 | M±SD | |
|-------|-----------|-----------|-----------|
| 자아탄력성 | 낙관적태도 | 2.68±0.86 | 2.75±1.00 |
| | 대인관계 효율성 | 2.79±1.06 | |
| | 자신감 | 2.69±0.94 | |
| | 감정통제 | 2.81±1.11 | |
| 자기효능감 | 일반적 자기효능감 | 2.91±0.91 | 2.86±0.95 |
| | 사회적 자기효능감 | 2.81±0.99 | |
| 학과만족도 | 일반만족 | 3.68±0.93 | 3.72±0.92 |
| | 인식만족 | 4.25±0.81 | |
| | 교과만족 | 3.34±0.97 | |
| | 관계만족 | 3.58±0.97 |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의 차이 검정에서 자아탄력성은 종교(F=4.39, p=.002), 학과 선택동기(F=3.99, p=.004), 교우관계(F=13.53, p=.01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는 ‘기독교’보다 ‘무교’, 학과 선택동기는 ‘적성과 취미’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권유’, 교우관계는 ‘어려움을 느끼는 편’, ‘보통’보다 ‘좋은편’에서 자아

탄력성이 높았다.

자기효능감은 종교(F=3.18, p=.01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기독교’보다 ‘무교’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학과 만족도는 학과 선택동기(F=7.54, p=.007), 교우관계(F=11.66,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과 선택동기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취업률이 높아서’가 ‘적성과 취미’보다 학과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우관계에서 ‘좋은편’인 경우가 ‘어려움을 느끼는 편’, ‘나쁜편’보다 학과만족도가 높았다(표 3).

표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n=325)

| 특성 | 구분 | 자아탄력성 | | | 자기효능감 | | | 학과만족도 | | |
|----|---------|-----------|------|------|-----------|------|------|----------|------|------|
| | | M±SD | t/F | p | M±SD | t/F | p | M±SD | t/F | p |
| 성별 | 남성 | 2.52±0.49 | 1.41 | .012 | 2.82±0.27 | 3.43 | .065 | 3.66±.68 | 1.58 | .210 |
| | 여성 | 2.71±0.48 | | | 2.90±0.26 | | | 3.78±.59 | | |
| 연령 | 20세-25세 | 2.71±0.51 | 1.25 | .285 | 2.90±0.28 | .61 | .691 | 3.72±.58 | 1.76 | .120 |
| | 26세-30세 | 2.79±0.42 | | | 2.88±0.19 | | | 3.77±.58 | | |
| | 31세-35세 | 2.60±0.50 | | | 2.79±0.23 | | | 3.86±.99 | | |
| | 36세-40세 | 2.40±0.29 | | | 2.83±0.17 | | | 3.90±.78 | | |

| 특성 | 구분 | 자아탄력성 | | | 자기효능감 | | | 학과만족도 | | | | | | | | |
|----------------|-------------------------|-----------|-----------|-----------|-----------|-----------|------|-----------|----------|----------|-----------|----------|------|----------|------|------|
| | | M±SD | t/F | p | M±SD | t/F | p | M±SD | t/F | p | | | | | | |
| | 41세-45세 | 2.55±0.27 | | | 2.89±0.19 | | | 4.22±.51 | | | | | | | | |
| | 46세이상 | 2.48±0.39 | | | 2.83±0.28 | | | 4.03±.58 | | | | | | | | |
| 학년 | 1학년 ^a | 2.61±0.53 | | | 2.85±0.29 | | | 3.75±.61 | | | | | | | | |
| | 2학년 ^b | 2.76±0.46 | 1.80 | .146 | 2.95±0.26 | 2.63 | .050 | 3.84±.56 | .93 | .422 | | | | | | |
| | 3학년 ^c | 2.70±0.48 | | | 2.86±0.24 | | | 3.72±.58 | | | | | | | | |
| | 4학년 ^d | 2.63±0.48 | | | 2.89±0.25 | | | 3.68±.73 | | | | | | | | |
| 종교 | 기독교 ^a | 2.52±0.44 | | | | | | | | | 2.85±0.25 | | | 3.83±.59 | | |
| | 천주교 ^b | 2.52±0.55 | 4.39 | .002 | 2.97±0.23 | 3.18 | .014 | 4.04±.44 | 1.86 | .117 | | | | | | |
| | 불교 ^c | 2.65±0.53 | | | a<d | | | 2.83±0.35 | | | a<d | 3.74±.58 | | | | |
| | 무교 ^d | | | | 2.92±0.24 | | | 3.72±.64 | | | | | | | | |
| 학업 성적 | 2.0이하 | | | | | | | | | | | | | 4.22 | | |
| | 2.0-2.9 | 3.17±0.24 | | | 2.87±0.36 | | | 3.68±.44 | | | | | | | | |
| | 3.0-3.9 | 2.81±0.46 | 2.25 | .063 | 2.94±0.24 | 1.07 | .371 | 3.77±.63 | 1.79 | .130 | | | | | | |
| | 4.0이상 | 2.69±0.47 | | | 2.90±0.27 | | | 4.08±.63 | | | | | | | | |
| | 해당없음 | 2.49±0.35 | | | 2.85±0.19 | | | 3.72±.65 | | | | | | | | |
| 학과 선택 동기 | 고교성적고려 ^a | 2.89±0.67 | | | | | | | | | 3.04±0.28 | | | 3.31±.54 | 7.54 | .007 |
| | 적성과취미 ^b | 2.55±0.46 | | | 3.99 | | | .004 | | | 2.86±0.27 | 2.43 | .047 | 4.00±.53 | | |
| | 취업률이높아서 ^c | 2.71±0.49 | b<d | 2.89±0.26 | | 3.72±0.58 | | | | | | | | | | |
| | 부모님, 선생님권유 ^d | 2.83±0.48 | 2.92±0.29 | 3.61±.65 | | | | | | | | | | | | |
| | 기타 ^e | 2.64±0.37 | 2.81±0.23 | 3.63±.69 | | | | | | | | | | | | |
| 교우 관계 | 어려움을 느끼는편 ^a | 2.94±0.64 | | | | 2.92±0.30 | | | | 3.64±.64 | 11.66 | | | .001 | | |
| | 보통 ^b | 2.81±0.47 | 13.53 | .015 | 2.90±0.26 | .47 | .626 | 3.58±.61 | | | | | | | | |
| | 좋은편 ^c | 2.55±0.45 | | | a<b<c | | | 2.87±0.27 | 3.91±.56 | | | | | | | |

a,b,c,d : Scheffe's test

4.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 (r=.608, p<.01), 자아탄력성과 학과만족도(r=.342, p<.01),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r=.256, p<.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4).

표 4.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간의 관계

(n=325)

| 특성 | 자아탄력성 | 자기효능감 | 학과만족도 |
|-------|--------|--------|-------|
| 자아탄력성 | 1 | . | |
| 자기효능감 | .608** | 1 | |
| 학과만족도 | .342** | .256** | 1 |

* p < .05 ** p < .01

IV.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과 선택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져가 125명(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경순과 박의정(2017), 조인영(2014), 장수현과 이미영(2015) 등의 연구와 유사하며, 이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보건의로 인력 인프라 확충 정책, 임상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수급 문제와 맞물려 타 학과 졸업생에 비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2.75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진아와 홍지연(2016) 3.48, 전현숙(2017) 3.43, 그리고 박지현과 김은희(2017) 3.46으로 이들 연구 결과에 비해 조금 낮았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별 점수의 순위는 감정통제가 2.81로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 효율성 2.79, 자신감 2.69, 낙관적 태도 2.6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정통제와 대인관계 효율성이 낙관적 태도나 자신감 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정서적 측면이 성격적 측면보다 자아탄력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박완주(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자아탄력성에서 정서적 측면이 강하면 낙관적 태도나 자신감으로 인한 자기행동을 조절할 수 있으며, 다른 속성보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종교($F=4.39, p=.002$)에서 '기독교'보다 '무교'인 경우, 학과 선택동기($F=3.99, p=.004$)에서 '적성과 취미'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권유'인 경우, 교우관계($F=13.53, p=0.15$)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편', '보통'보다 '좋은편'인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이는 곽윤경(2013), 손혜경 등(20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자기선택보다는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특성상 타인에 의한 학과 선택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자아탄력성은 발달과정에서 변화되고 습득되어지는 역동적 과정(Luthar 등, 2000)이므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학과만족도 증진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하게 될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자신감과 낙관적 태도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2.86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경하(2018)의 3.57, 한혜순과 김윤영(2018)의 3.38, 김명숙(2011)의 3.44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위요인 별로는 일반적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수준이 2.91과 2.81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종교($F=3.18, p=.014$)에서 '기독교'보다 '무교'인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다른 일반적 특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덕진과 이정섭(2014)의 연구에서 연령, 학제, 교우관계 및 학점에서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종교 및 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과거의 성공적인 성취 경험이나 주변사람들의 지지, 설득 및 대리경험을 통하여 영향을 받으므로(박영신과 김의철, 2001)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의 밀착된 면담을 통한 설득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선배의 지지와 학업성취도 및 학과만족도를 높여 성취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 평균은 3.72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전현숙(2017)의 3.88, 김명숙(2011) 3.91보다는 낮고, 문인오과 이경완(2010) 3.61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인식만족요인이 3.68로 가장 높았고, 관계만족요인이 3.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권혁미과 한혜숙, 2018; 문인오과 이경완, 2010).

한편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는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의 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김덕진과 이정섭, 2014; 전해옥, 2016; 전현숙, 2017).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아지므로 신입생 때부

터 간호의 가치관과 직업관을 확립시키는 교육과 자신감, 긍정적 태도,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파악한 손혜경 등(2017)의 연구와 박선화와 한승희(2016)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간접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자아탄력성과 학과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도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탄력성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자원에 의해 학과만족도가 영향을 받는 만큼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B시 소재 1개 간호학과의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연구할 것을 제언하며,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의 진행과 자아탄력성 및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수 있는 학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과과정 적용을 제언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B지역 일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2.75점이었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감정통제가 2.8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2.86점이었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2.9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과만족도는 평균 3.72점이었고, 하위요인 점수에서 인식만족이 4.2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의 차이에서 자아탄력성은 종교, 학과 선택동기, 교우관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과 만족도는 학과 선택동기, 교우관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간호대학생의 자신감, 낙관적 태도를 포함한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간호학과를 선택한 신입생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곽윤경(2013).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5), 2178-2186.

권혁미, 한혜숙(2018). 간호대학생의 행복인식과 학과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 527-536.

김경남(2015). 간호대학생의 디딤돌 학습법이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2), 193-202.

김경하(2018).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3), 399-408.

김계현,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만족의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 연구, 1(1), 7-20.

김택진, 이정섭(2014).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244-254.

- 김명숙(2011).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2), 159-167.
- 김영순, 오은주(2016). 간호대학생의 감성 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7), 103-111.
- 김영희(2015).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간호전문직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2), 8948-8956.
- 문인오, 이경완(20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83-91.
- 박선화, 한승희(2016).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8), 517-526.
- 박완주(2009).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비판적사고성향, 학습양식 및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8(3), 240-250.
- 박영신, 김의철(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질: 교육·건강·운동·조직에서의 성취. *파주, 교육과학사*.
- 박진아, 홍지연(2016).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이 기본간호술기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342-351.
- 박지현, 김은희(2017).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9), 193-202.
- 박현진(1997).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혜경, 권수혜, 박현주(2017).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영적안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5), 636-646.
- 신은정, 박영숙(2013).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11), 5636-5645.
- 오지현(2014).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873-884.
- 이외선(2014). 간호대학생을 위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수현, 이미영(2015).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극복력과의 관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9(2), 255-265.
- 정경순, 박의정(2017).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수면의 질, 정신건강과의 관계. *대한통합의학학회지*, 5(4), 67-76.
- 정미현, 신미아(2006).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170-177.
- 조정애, 김정선(2016).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4), 587-595.
- 전해옥(2016).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학업적 실패 내성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2), 171-181.
- 전현숙(2017).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2), 213-221.
- 조인영(2014).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5), 2937-2945.
- 한혜순, 김윤영(2018).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1), 29-38.
- 홍혜영(1995). 완벽주의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raskamp LA, Wise SL, Hengstler DD(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 quality. *J Edu Psychol*, 71, 494-498.
- Klohn E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 Pers Soc Psychol*, 70(5), 1067-1079.
- Sherer M, Maddux JE, Meracndante B, et al(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51, 663-671.
- Luthar SS, Cicchetti D, Becker B(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 71(3), 543-562.